

“한강라면 먹으러 줄 섰다”... 대만 사로잡은 K-포장마차

aT, 'K-푸드 팝업스토어' 개최
1.3만명 다녀가 판매액 약 1000만원
뉴욕 '발효식품 홍보 행사'도 성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만 현지인을 대상으로 K-포장마차를 부각하고, 이른바 '한강 라면' 등의 길거리음식을 알렸다. 미국에서는 현지 상·하원의원 및 정부관료를 초빙해 전통 발효음식을 선보였다.

aT는 지난 15~17일(현지시간) 타이베이 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화산1914 문화창의산업원구'에서 '대만 K-푸드 팝업스토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의 2026 K-관광 로드쇼와 연계해, K-푸드와 K-관광을 함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포장마차'를 주제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를 꾸몄다.

드라마속 포장마차를 재현한 포토존은 입소문을 타며 행사기간 내내 문전성시를



대만 타이베이 K-푸드 행사장을 찾은 현지인들.

/aT

이뤘다. F&B존에서는 떡볶이, 핫도그 등 대표적인 K-스프리트푸드를 선보이는 등 드라마에 나온 K-분식의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판매마켓존과 마켓테스트존에는 과자류부터, 콤팩트, 유기농 현미칩 등 폭넓은 제품군을 진열해 방문객 눈길을 끌었다.

또 소비자 반응 조사도 실시해, 대만에 진출하려는 수출기업에 마켓테스트 기회도 지원했다.

팝업스토어에서 큰 인기를 모은 콘텐츠는 한강 라면이었다. 즉석라면 조리기를 체험하려는 방문객들이 행사장 밖까지 줄서는 등 진풍경이 펼쳐졌다.

행사장을 찾은 한 대학생의 소감도 전해졌다. 이 학생은 “드라마에서만 봐 온 한강 라면을 타이베이 한복판에서 직접 만들고 먹어보니, 한국 여행 온 것 같다”고 했다.

이번 K-푸드 팝업스토어에는 사흘간 방문객 1만3000여명이 다녀갔다. 현장 판매액만 약 1000만 원(23만 대만 TWD)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 평균 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aT의 전기간 수출수출품이사는 “K-푸드의 대만시장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4억87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대만은 중화권 핵심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결합한 체험형 마케팅을 강화해, K-푸드가 대만 소비자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6일 aT는 미국 뉴욕 올버니 주정부 청사에서 김치와 장류 등 한국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뉴욕주 상·하원의원 및 정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대만 5월 기념하는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에 맞춰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위한 식단지침 2025-2030'에 김치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K-발효식품의 영양학적 우수성·맛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에 중점을 뒀다.

행사에에는 조셉 에이 그리포 미 상원의원을 비롯해 데이비드 아이타 웨프린, 조앤 사이먼, 날리 로직 하원의원 등 총 12명의 의회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리포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식품을 볼 때 건강성·기능성과 함께 인공첨가물을 줄였는지 우선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김치가 건강한 발효 슈퍼푸드인 만큼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치를 활용한 백김치샐러드, 김치전, 김치데지갈비찜 등과 장류를 활용한 고추장닭강정, 잡채, 된장삼겹살찜 등이 오찬 메뉴로 제공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김정관 “착한주유소, 유가안정 노력 감사”

(산업부 장관)

현장 격려하고 애로사항 청취
내비게이션 위치 표출 등 홍보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착한주유소로 선정된 주유소 대표들을 만나 물가안정 노력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소재 착한주유소인 대원셀프주유소를 방문해 주유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중동발 유가 불안에 따라 국내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가격 안정에 앞장 서고 있는 착한주유소들을 격려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착한 주유소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부터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선정한 주유소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주마다 서울·경기 지역은 10개소, 그 외 지역은 5개씩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 총 334곳이 선정됐다. 최근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11원, 경유 2006원 수준으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착한주유소 선정 등 노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대원셀프주유소에서 대원셀프주유소, 타이거통상 월드컵주유소, 북두칠성주유소, 신화에너지 오해피주유소, 광활농협주유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착한 주유소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물가는 지난 3월 0.6%포인트, 4월 1.2%포인트 수준의 완화 효과를 보였다. 지난 3월 OECD 평균 에너지 물가가 8.1%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5.2%에 그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착한 주유소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리터당 약 14~15원 저렴하고, 대원셀프주유소, 월드컵주유소 등 누적 2회 이상 선정된 24개 핵심 주유소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19원~21원까지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 주유소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오픈넷 배너 개설은 물론 티맵,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민간 주요 내비게이션에 착한 주유소 위치를 표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누적 5회 이상 지정되는 곳은 '착하다 착한 주유소'로 명명하고 정부 포상과 전용 마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송미령, 전주서 영농형 태양광 성과 점검

(농림식품부 장관)

‘영농형태양광법’ 시행 준비 박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 태양광법'은 식량안보 및 농업인 소득향상의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 등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 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9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영농형 태양광의 실증연구 성과를 살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득 제고 및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햇빛소득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이 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로, 하위법령 마련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다 현장성 높은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등의 소득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실증단지에는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조성한 '고정형·추적형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의료·바이오업계, 中 실버시장 정조준

코트라-韓대사관-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 코리아 인 차이나' 개최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을 넘어선 중국의 실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바이오 산업이 '원팀'으로 뭉쳐 현지 공략에 나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18일~20일까지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메디컬 코리아 인 차이나(Medical Korea in China)'를 개최했다고 밝

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5년 11월 한·중 양국 정부 부처 간 체결된 '실버경제 업무협약(MOU)' 이후 처음으로 열린 실버산업 분야 대규모 비즈니스 협력 장이다.

중국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3억 2000만 명에 달하며, 주요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중국 국무원은 2024년 실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업계는 중국 실버 시장 규모가 2035년 약 30조 위안(한화 약 57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중국 노년층은 자산 규모가 크고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난 '액티브 시니어'로서 건강과 가치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가 장비 및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행사는 중국 최대 실버산업 전시회인 '중국국제양로서비스박람회(CISSE)' 내 한국관 운영과 '한·중 실버경제 포럼'으로 구성됐다. 한국관에는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국내 기업 21개사가 참가해 중국 바이어 및 투자자 70여 개사와 500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발전4사·군산대, 전북 해상풍력 인재 양성

중부·남동·서부·남부발전 맞손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4사가 전북 지역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국립군산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중부발전은 발전공기업 4사를 대표해 지난 12일 군산대 대학본부에서 군산대학교와 '해상풍력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 지역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풍력 전문 교육과정 공

동 개발 및 운영 ▲학생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추진 ▲해상풍력 공동 연구 및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인적·물적 교류 ▲전북 지역 해상풍력 산업 진흥을 위한 상생 모델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군산대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TU Delft)와 덴마크 공대(DTU)처럼 세계적 수준의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현재 대학 내 'G-WIND 혁신연구센터'를 통해 초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내 연구 인프라를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